

강진 녹차테마파크 원점서 재추진

문화유적 발굴로 좌초 위기를 맞았던 강진 녹차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원점에서 다시 추진된다.

11일 강진군 등에 따르면 최근 녹차테마파크 사업 추진 주체인 합천산업(주)이 기본계획수립과 문화재 현상 변경 등을 위한 용역을 의뢰했다.

녹차테마파크는 오는 2012년까지 대구면 운룡리 일대 430여만㎡에 350억 원을 투입, 녹차 등을 주제로 수목원과 가공공장, 워터·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이나 그동안 문화재법 등 관련 법률의 제약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업체측은 지난해 3월 공사에 들어

3월 착공후 국가 사적지로 밝혀져 좌초 위기

당국 "행정상 절차만 밟는다면 큰 문제 없어"

갔으나, 수십 개의 가마터가 산재한 국가사적지(68호)로 밝혀지면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중단됐다.

여기에 임목과 군락이 양호해 생태자연 1등급으로 지정된 300여만㎡의 참나무 군락지까지 더해져 개발에 차질을 빚었다.

업체 측은 결국 지난 8월 문화재법 등 관련 법률상의 제약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며 투자금 회수 등

사업에서 발을 빼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강진군의 요청에 따라 업체 측은 기본계획 수립과 생태조사 용역을 의뢰했고, 내년 3월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한 뒤 내년말까지 관련 협의와 인·허가 등을 마칠 계획이다.

업체 관계자는 "강진군과 함께 사업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점을 해결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모든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병호 강진군 투자유치팀장은 "문화재청이 낙후된 지역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 대해 우호적이고, 행정상의 절차만 밟는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면서 "업체측의 투자 의욕도 높은 만큼 조만간 녹차테마파크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군과 업체 측은 12일 강진군청에서 주민설명회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업 재개에 따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녹우당·금쇄동 별천지·두륜연사 등 '해남 땅끝 관광 8경' 선정

해남군이 지난 10일 관광 해남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땅끝 해남 관광 8경(景)'을 선정했다.

군은 그동안 공모를 통해 해남을 대표할 수 있는 아름다운 풍광이나 문화 예술 분야를 상징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신청을 접수했다.

8경은 연봉낙우(連峯錄雨·녹우당과 천연기념물 및 국보 등의 유물, 고산 오우가의 산실인 금쇄동의 별천지), 두륜연사(頭輪煙寺·두륜산 일대 경관으로 운무에 쌓인 일지암 등), 고천후조(高千후조·고천암 철새), 명랑노도(鳴梁

怒濤·울돌목에 스며드는 총무공의 호국정신), 우항괴룡(牛項怪龍·우항리 공룡 발자국따라 배우는 지구의 역사), 육단조범(陸端眺帆·땅끝과 송호 사구미 해수욕장 및 바다경치), 달마도솔(達摩兜率·신비로운 달마산과 도솔암, 천년고찰 미항사), 주광낙조(周光落照·주광리 관광단지, 매월리 해변경관 낙조) 등이다.

해남군은 앞으로 8경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영광 '굴비타운' 조성공사 난항

공기 연장에 추가 부담 비용 100억원 넘을 듯

경기 침체 영향 선분양지역 분양률 40% 그쳐

영광군이 '굴비타운' 조성을 위해 민간사업으로 진행 중인 범성항 매립 공사 난항을 겪고 있다.

영광군은 범성항 일대 25만7천여㎡를 매립, 이 가운데 11만8천여㎡를 분양해 상업과 준주거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분양 수입으로 민간 업체 공사비를 보전할 계획이다.

그러나 2003년 착수했던 조성 공사는 계획 단계부터 잦은 공사 중단과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40개월에서 70개월가량으로 늘어났고, 공사비도 38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불어난 상태다.

준공 예정일인 내년 6월까지 들어갈 총 공사비는 약 600억원대로 추정

돼 택지 분양이 순조롭게 이뤄지더라도 100억원 가량의 군비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선분양 지역의 분양률이 40%대에 그치고 있어 영광군이 떠안아야 할 추가 비용이 1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수입·지출 규모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 군비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분양 물량을 처리해 추가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입맛 돋우는 돌미나리 수확 한창
광산구 동곡동의 한 미나리밭에서 돌미나리 수확이 한창이다. 애호박과 함께 동곡동 특산물인 돌미나리는 이곳 농가 100여 곳에서 재배되며 광주와 서울 등지로 팔리다가 지난해에만 16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광산구 제공)

전남도 '임도사업 평가' 담양군 2년 연속 '우수'

담양군이 임도(林道)사업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군으로 선정돼 2억5천만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했다.

전남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담양군은 대덕면 입석지구 신실임도와 남면 만월지구 임도구조 개량사업을 추진하면서 절개지 비탈면에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개설과 깎아지른 절벽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임도구조 개량사업의 경우 집중호우시 도로가 유실되는 피해예방을 위해 구조물 설치를 확대하고 매설기와 풀개 파종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 임도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받은 상사업비 2억5천만원은 재해 위험지역과 황폐지 개천 복구 정비에 재투입된다.

/담양=노정훈기자 cjoh17@

해남 5일시장 8곳 정비

해남군이 해남읍 5일시장을 비롯해 지역내 5일시장 8곳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해남군은 25억원을 들여 내년 상반기까지 해남읍 5일시장 공용 주차장을 현재 50면에서 180개 면으로 확대하며 외곽도로와 연결하는 새로운 2차선 출입로를 신설하고 시장 주변 간판과 가로등을 비롯한 경관을 정비할 계획이다.

북평면 남창 5일시장에는 방풍벽 설치와 함께 주차공간 20면을 확보하고 차광시설도 설치된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2009 강진 청자문화제 준비작업 '시동'

8월 8일부터 9일간...4개 분야 70여 프로그램 마련

강진군이 내년 청자문화제의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강진군은 최근 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8월 8일부터 9일간 열리는 내년 청자문화제 기간 동안 기획·체험 등 4개 분야 70여개 프로그램과 20여개 부대행사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군은 연말까지 여론 수렴과 프로그램 보안을 거쳐 1월초 세부 계획

을 확정하기로 했다.

올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지 못했던 열기구 체험 등 28개 프로그램은 폐지한 대신 강진청자 제작 전 과정 시연, 대나무를 이용한 대형 청자등(燈) 제작, 청자로 만든 담에 새기는 추억의 글·그림 등 30여가지 프로그램을 새로 선보일 계획이다.

최고 인기 프로그램인 고려왕실 행차는 더욱 알차게 꾸미고 강진

만 선사체험과 강진만 탐사체험, 개매기와 통발어업 체험 등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바다 관련 체험 행사는 신설,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처음 도입돼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던 쿠폰제는 축제 기간 강진군 전역으로 넓히기로 했다.

쿠폰제는 6천원짜리 입장권을 구입하면 축제현장에서 5천원 상당의 식사와 물품 구입 등을 할 수 있는 방식이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화순 생물산단 분양가 확정

화순군 화순읍 내령리 121번지에 조성 중인 생물산단단지 분양가격이 ㎡당 11만7천54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화순 생물산단단지는 지난 2006년 1월 지정고시된 현재 85%의 공사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총 공사비는 538억원이 투입되며 75만5천289㎡ 규모로 공장용지 36만 8천824㎡, 한방유통시설 2만㎡, 지원 시설 1만62㎡, 도로녹지 등 35만6천

403㎡로 조성된다. 분양면적은 공장용지, 한방유통시설, 지원시설 등 39만8천886㎡로 이 가운데 전남생물산업연구센터 2만8천926㎡, ㈜녹십자 9만8천963㎡, 한방유통시설 2만㎡ 등 14만7천889㎡는 분양이 완료됐다.

이번에 분양될 산업단지 부지의 주요 유치업종은 의약품 제조업, 기초 의약품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당 11만 7,540원

의약업체 유치 박차

의료용품 및 한의약품 제조업 등의 약 관련 첨단산업분야다.

전완준 화순군수는 "전남생물산업연구센터와 녹십자 독감백신 공장이 준공되고 분양가격이 결정됨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이 활기를 띠고 있다"며 "산업단지 내 의약항방 관련 기업 및 연구소 등의 유치를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나비의 고향' 함평 16일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오는 16일 함평군 나산면 일대에서 '제 1회 함평나비배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가 열린다.

함평군 생활체육협의회와 한국산악자전거연맹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나산면 원구산 마을회

관에서 출발해 송산재, 삼모봉, 중고개, 원선재를 거쳐 원구산 마을회관으로 돌아오는 25km 구간에서 펼쳐진다.

경기 종목은 클럽 대항전으로 치르는 단체전과 여성 1, 2부의 개인

전, 초등, 중등부, 시니어부, 베테랑부, 마스터부, 그랜드마스터부 등 6개 부문의 남자 개인전 등 총 3개 등급이다.

참가 희망자는 12일 오후 5시까지 한국산악자전거연맹 홈페이지(www.kcfmb.or.kr) 등에 신청하면 된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등대바다

Daejin Solari (주) 대진솔리

1600-7480

태양열 보일러로 난방 및 온수 비용을 해결 하세요!!

Daejin Solari (주) 대진솔리

1600-7480